

# 장성군, 지역발전 견인...내년 신규사업 110건 확정

## 국·도비 공모 등 311억원 규모...우선순위 예산편성

### “정부 건축재정 감안 시책 추진 앞서 검토 반드시 필요”

장성군 발전을 견인할 내년 신규사업 윤곽이 나왔다.

장성군은 전남 군정 2층 상황실에서 내년도 군정 시책 보고회를 열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행복, 부자 농촌을 이루기 위한 311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110건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규사업에는 국·도비 공모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장성군은 지역의 지속 성장을 위한 ‘목적 친화도시 조성’, ‘황룡강 수생태(물순환) 보전’, ‘장성 하수처리시설 섬유 여과 설비 개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삼평화공원 관광 명소화’, ‘명림담 테마공원 경관 개선’, ‘장성 라이브 릴레이 여행’ 등을 중점 논의했다.

지난 7월에 공모 선정된 ‘키즈레일 백양사역 어린이집 건립’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8일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와 협약을 체결한다.

앞선 5월 유치에 성공한 ‘2025년 전남도민체전’ 준비도 한층 완박을 기한다. 장성군은 대회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연승대회 격인 ‘2025년 전남도민체전 프레대회’ 개최를 타진하고 있다.

농업 발전 분야에선 ‘농기계 임대사업 남부 분소 설치’, ‘축산농가 자연재해 예방시설·장비 지원’, ‘정년 스마트 영농단 육성’, ‘논콩 기계화 특화단지 조성’ 등을 발표했다.



장성군은 발굴된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우선순위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과 주요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고회를 주재한 김한중 장성군수는 “내년

도 정부 건축재정을 감안해, 시책 추진에 앞서 다각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장성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 나주시, 추석 명절 앞두고 가족분노 및 악취 특별점검

나주시가 쾌적한 추석 명절 연휴를 위해 악취 특별점검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27일까지 가족분노 및 악취 배출사업장 20곳 특별점검을 통해 가족분노 무단 방류, 악취 발생 등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가족분노 야적·방치, 하천 등 공공수역 유출 행위,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악취방지·저감장치 시설 적정 운영, 악취정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와 합동으로 배출·처리시설 관리방법 홍보, 아구치발생 방지·저감을 당부하면서 경미 사항에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귀성객들이 고향에서 쾌적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악취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 담양군, ‘4분의 기적’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 교육 추진

담양군은 지난 15일 담양여성회관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및 교육 희망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담양군보건소와 대한안전연합이 함께한 프로그램으로,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을 숙지해 위급상황을 인지하는 단계에서 119 도착 전까지 응급처치 요령을 배우는 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적기와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기본원리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장감 있는 실습 위주로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은 “실제 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술을 배울 수 있어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심정지와 호흡이 없는 환자가 발생한 즉시 119 신고와 함께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지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환자 생존율이 60~80%까지 증가한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주민의 생명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화순 모후산 단풍 숲길 ‘가을철 걷고 싶은 숲길’ 대상 선정

## 전남도, 전문가 심의 거쳐 선정 야생화 볼 수 있는 친환경 숲길

화순군은 전남도에서 선정한 ‘가을철 걷고 싶은 숲길’에 ‘모후산 단풍 숲길’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도내 숲길 이용 및 산림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로 ‘걷고 싶은 숲길’을 발굴해 전남 대표 명품 숲길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5개 숲길을 우수 숲길로 선정하고 ‘모후산 단풍 숲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모후산 단풍 숲길’은 아름다운 야생화와 사시사철 푸른 정경, 자연 폭포 등을 볼 수 있는 친환경 숲길이다. 모후산 자락에 자리한 유마사 사찰 입구를 감싸고 있는 울창한 단풍 나무와 해련부도담 주변의 아름다운 단풍 숲이 일품이다. 화순군은 기존에도 ‘너릿재 옛



길, 「오감길」이 우수 숲길로 선정되어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아름다운 단풍을 보며 고즈넉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숲

길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안전관리와 함께 숲길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어갈 계획이다. 화순=박순철기자



# 곡성군, 전남형 생태학습 도시 실천행사 개최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사장 이상철)이 15일에 곡성을 일원에서 친환경 캠페인인 ‘한날한시, 다 함께 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곡성군을 포함한 전남의 9개 시군이 동일한 날, 공동된 생각과 희망 아래 동일한 활동을 펼쳤다.

캠페인은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터미널, 군청사거리, 레저문화센터 등을 돌며 환경정비 활동이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주민들은 소소한 행동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3)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희망하는 퍼포먼스까지 더해져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줄기 행사에 참여한 주민 A씨는 “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는 시간이었다. 또한 다음 세대가 아닌 지금 우리를 위해 얼마나 필요한 활동인지를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곡성=양혜영기자

# 구례군, ‘2023년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 “시책 추진 방향 정하는 중요한 기준”

구례군은 9월 14일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구례군정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 2023년 인구교육

추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구교육 추진 지원사업은 인구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양질의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구본진 기획홍보실장이 강사로 나서 ‘인구변화의 이해와 미래 준비’라는 주제로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문제를 짚어보고 공직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했다.

김순호 군수는 “인구변화는 시책 추진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인구교육을 진행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